

《테러와 기독교의 신앙 2》

며칠전에 폐북에 올린 필자의 제목 글을 보충 하기위해 두번째 글을 올린다.

타종교를 바라보는 기독교의 시각에는 몇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만 하는 절대 유일한 신앙에서 다른 종교들을 어떻게 이해 할 수가 있겠는가?

이번 테러 사건으로인해서 기독교인들의 취 할 자세로 이슬람인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필자의 뜻은 종교 '포괄주의' 나 더 심각한 '다원주의' 를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기독교 밖의 진리와 관련해서는 '포괄주의' 를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구원에 관해서는 '배타주의' 를 주장하는 기독교내의 많은 학자들이 있음도 안다.

그리고 결국 기독교가 배타적일수 밖에는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수주의' 라는 말로 대처 하기도한다.

기독교는 교리적 특성상 다른 종교의 진리성을 문제 삼을 수 밖에는 없다.

그러나 '테러' 문제는 교리적 관점에서나 종교적관점에서 보면 결국 배타적 결과로 결론 지어 질수 밖에 없다.

또한 상대주의 사회 환경에서 자란 현대인들의 '관용주의' 를 적용해서 '덕' 스러운 태도를 취하자는 뜻도 아니다.

각 종교의 독특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종교 '병행주의' 를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하나님' (궁극적 영적실재) 께서 계시다는 '다원주의' 를 슬며시 내 세우려는 시도 또한 아니다.

필자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에 관한한 종교성을 띤 배타적인 자세인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는 태도에서... 솔직히 선교적 관점인 '이것도 저것도' 라는 포용적 자세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배타 절일수 밖에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 만큼 선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타종교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타종교를 바라보는 기독교 시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알리스터 맥 그레이스' 의 '기독교신학' 이란 방대한 책을 소개한다.

